

상임위원장 8:8:2 유력... 운영위·법사위 놓고 쟁법 복잡

<더민주: 새누리: 국민의당>

3당 사령탑 확정...원구성 협상 본격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이어 4월 더불어민주당까지 원내 지도부 진용을 갖추어 따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부문은 상임위 배분 문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는 핵심 상임위의 주도권을 서로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여당이 늘 가져왔던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꼭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데 대해 유연한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협치’의 가치를 내세우는 만큼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국방·외통위 주도권을 야권에 내어줘 책임을 나누는 대신, 경제부처 상임위를 더 쟁겨 실리를 얻자는 ‘실사구시’ 전략으로 임한다.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등극한 만큼 운영위원장을 맡길 바라지만, 동시에 관례적으로 제1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포기 못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운영·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기 어렵고 권력 독식이란 비판이 우려되니 법사위원장을 지켜내자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총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보건·국토교통위 등은 반드시 거머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에선 당내 호남지역 의원이 다수인 만큼 지역현안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기류가 세다. 일각에선 국회 운영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 중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 갖는다면, 나머지 법사위원장은 ‘캐

국민의당 농수산·산업통상 욕심

박지원 “원내 의석수대로 배분”

야당 국회의장 탄생 여부도 관심

스팅보트'인 국민의당에 배분하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6개다.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의 특위를 포함하면 18개가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10곳, 더민주는 8곳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뉘어갔다.

이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특위 포함)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8개씩 배정하고,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 받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4월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원칙대로 원내 의석대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거래나 흥정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협상 결과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원내 1당이 의장을 차지하고 2당과 3당이 국회 부의장을 한 석씩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의석 차이가 단 1석에 불과한 상황인데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결과는 유동적이다. 결국, 국회의장 자리는 원 구성 협상 과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의장직은 더민주가 맡아야 하나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새누리당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대 국회 제1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시: 2016.5.4 (수) 14:00

• 장소: 국회 본청246호



김종인과 호흡 맞출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상호(왼쪽 두번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뒤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주도권·당 화합·경제민주화...속제 산적

더민주 새 원내대표 이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3선의 이상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제1당 첫 원내수장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우 의원의 당선은 주류인 친노(친노무현)·진문(진문재인) 그룹의 지원 속에 이뤄진 것이어서 당내 주류 세력의 강화를 해석된다. 하지만 합리적이란 평을 들어온 그가 당내 역학구도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우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여서 대선 정국 초입까지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더민주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키워드로 내년 대선 역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대표 구호로 치르려는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이 불씨를 살려 정국을 주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내에 경제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키로 한 가운데 김 대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며 ‘투톱’ 관계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박지경기자 jkpark@

말씀에 따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교섭력을 발휘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졌다.

첫 시험대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20대 국회 출범이 늦어질 경우 자칫 발목잡는 야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력이 주목된다.

당 내부적으로는 우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여서 대선 정국 초입까지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더민주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키워드로 내년 대선 역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대표 구호로 치르려는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이 불씨를 살려 정국을 주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내에 경제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키로 한 가운데 김 대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며 ‘투톱’ 관계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박지경기자 jkpark@

홀로 공놀이 하는 아이...웬지 딸아이에게 미안



(153) 공놀이



펠릭스 발로통 작 '공 가지고 노는 아이'

어린이날 즈음해서인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딸아이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놀이터에 간 적은 있다. 엄마랑 공놀이를 하고 싶어 했던 아이의 바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네 태워 뒤에서 밀어주거나 혼자서 미끄럼틀을 몇 번 오르내리게 했던 것 같다. 한 번도, 아이가 놀다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까지 원 없이 여유 있게 놀이터에 머문 적 없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의 사소함과 그때그때의 작은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시절이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해 저물도록 놀이터에서 아이랑 자주 놀아주겠다. 공놀이도 실컷 하면서,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작가 펠릭스 발로통(1865~1925)의 ‘공 가지고 노는 아이’(1899년 작)를 보면 영락없이 그 시절 딸아이가 생각난다. 굴러가는 공을 쫓아가는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날 듯 즐거움이 가득하다. 한편으로 감정이입이 되어서인지 아련하고 쓸쓸하게도 느껴진다. 아이 혼자 놀게 내버려두고 대화에 열중

하는 듯 무심한 어른들과 멀리 떨어져 텅 빈 공원의 전경에 두드러져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웬지 미안한 마음이다.

펠릭스 발로통은 고갱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반인상주의적 회화운동인 ‘나비파(Nabi)’의 대표적인 화가. ‘나비’란 히브리어로 ‘예언자’라는 뜻인데 1892년경 상징주의 문예운동의 영향을 받아 신비적 상징적 경향을 가졌으며 입체감과 깊이감 보다는 평면적인 구성과 장식적 회화를 중요시하였다. 나비파들은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 판화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대담한 화면 구성을 즐겼다. 나비파들은 스스로 새로운 예술의 선구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여원 그대로 서양미술사에서 근대 회화의 예언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더불어민주당 SOS 캠페인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S 시작해요 O 오늘부터 S 서로 배려를

배려교통문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SAFE DRIVING CAMPAIGN

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안하기

운전할 때는 '정지선' 지키기

주정차할 때는 '정해진 곳'에서 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APP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안드로이드 아이폰